

자전적 소재로 본 윤후명 여행판타지의 함의

- 《가장 멀리 있는 나》, 〈강릉/모래의 시〉, 〈강릉/너울〉을 중심으로 -

이미림*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여행판타지와 ‘가장 먼’ 고향길
- III. 복수자아인 타자들의 현현
- IV. 윤후명 소설의 함의

【국문초록】

여행판타지가 특징인 윤후명 소설은 모더니즘기법, 환상성, 자아 인식, 의식의 흐름, 현실인식의 결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비유기적이고 몽환적인 그의 문학은 작품 자체의 상징과 은유에 치우치다보니 일관 되게 나타나는 존재의 불안과 방황의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자아반영적·메타픽션적 요소를 지닌 작품세계에 주목하여 작가의 개인적 이력이 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1946년생인 작가가 유소년기에 겪은 전쟁체험은 그의 삶과 문학을 지배하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는다. 전쟁은 부친과 옆집소녀의 상실, 청상이 된 어머니의 재혼, 양부와의 가족형성 속에서 일생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디아스포라적 운명과 형벌을 갖게 하였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비밀은 ‘변소구멍의 남자’, ‘하얀길’로 상징되며 여행은 이러한 의문을 푸는 여정이 된다. 전쟁과 피난 때 고향에 ‘당그러니’ 남게 된 모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부친과 남편 없는 외로움을 겪어야 했고 재혼한 모친에 대한 콤플렉스로 남는다. 《가장 멀리 있는 나》와 〈강릉/모래의 시〉, 〈강릉/너울〉은 부모와 진정으로 결별하여 정신적인 상징계에 진입하는 주인공의 여행을 그린 소설들이다. 윤후명 소설에서 방황하고 여행했던 의문들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은 가족사를 배경으로 할 때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자신의 존재의미와 뿌리 찾기에서 제대로 설 수 없었던 주인공은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여행 중 만난 한민족 이주자와의 조우를 통해 자아 정체성에서 민족 정체성으로 확대됨으로써 탈국경 다문화 시대에 공감을 얻고 있다. 여행자는 여러 여성들과 만나 일탈하는데 그녀들은 주체가 되지 못한 타자인 자기 자신이다. 주인공은 탈북자, 조선족, 고려인, 하와이 노동자와 같은 한민족 이주자의 떠돌음 목도하며 자신과 동일시하고 정체성을 회복한다. 현실도피 혹은 현실인식의 결여라는 그의 문학에 대한 기존평가는 재고되어야 하는바, 그의 기나긴 오디세이는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주제어 : 6.25트라우마, 여행판타지, 복수자아, 아비 찾기, 자전적 소재, 여성타자, 한민족 이주자.

I. 머리말

시로 출발하여 소설로 전환한 윤후명은 자아반영성과 환상적 기법, 메타픽션적 특징을 바탕으로 한다. 누란과 돈황, 실크로드, 러시아, 쿠바, 유럽 등의 이국공간을 배경으로 파편적이고 비유기적인 여행구조와 여성과의 만남 속에서 현대인의 실존적 성찰과 자의식을 탐색하는 그의 문학은 여행서사, 여성타자와의 조우, 현실(이쪽)과 가상(저쪽), 존재의 시원, 자아 확인, 외국공간 확대 등 동시대작가와 차별화된 유니크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존재의 불안과 방황의 실체를 그리는 여행판타지는 불안의식과 자아 확인이라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주제의식을 동반한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거나 안정된 직업을 갖지 않는 여행자의 의식 속에는 일탈적이고 비밀상적인 현대인의 불안감이 깔려있다. 대표작인 《협궤열차》와 <하얀 배>에 나타나는 옛것에 대한 회고와 그리움, 소멸의식으로서의 공룡, 협궤열차 이미지나 이국적인 동식물과 전설 및 신화적 소재는 환상성을 특징으

로 한다.

윤후명 문학에 대한 기존평가를 살펴보면, 자아발견과 세계와 우주의 본질 탐구 및 근원적 탐색으로 보는 관점¹⁾, 그리움과 외로움의 작품세계²⁾, 자전적 소재로서의 사소설적 측면³⁾에서 연구되었다. 이지은⁴⁾은 개인의 일상과 내면세계에 초점을 둔 작가로 새, 서역, 나무 등의 상징적 이미지와 서정적 특질이 윤후명의 특징이라 평가하고 있고, 강은정⁵⁾은 회상과 연상에 의한 의식의 흐름기법과 현실성의 결여를 통한 현대인의 고독한 존재론적 모습들을 고민하는 주제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안성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하얀 배>를 연구대상으로 민족어와 백의민족과 대면하며 민족 정체성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미를 부여⁶⁾한다. 이와 같이 윤후명 문학은 기법적 측면이나 환상적 소재를 통한 정체성 확립으로 귀결됨으로써 자아에의 몰입 혹은 현실인식의 부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고명철은 윤후명의 실크로드 여행서사가 4.19의 격변,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속에서 자기존재에 대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1) 문홍술, 「한 고독한 구도자의 글쓰기」, 『작가세계』제27호, 세계사, 1995.; 양진오, 「여행하는 영혼과 여행의 소설」, 위의 책.; 이미영, 「윤후명소설연구: 여로형 서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방금단, 「윤후명 소설의 환상성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최영자, 「윤후명 소설에 나타난 반영적 사유와 존재론적 인식」, 『한성어문학』제29권, 한성어문학회, 2010.

2) 권명아, 「세계로 향한 구석, 무한으로 향한 내밀」, 『작가세계』, 앞의 책.; 김경수, 「존재의 확산을 향한 여정의 소설」, 위의 책.; 하웅백, 「폐허의 사랑」, 위의 책.

3) 최현주,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의 상동성 고찰」, 『남도문화연구』제16권, 순천대학교, 2009.; 김만수, 「사소설의 한국적 변용과 그 의미」, 『작가세계』, 앞의 책.

4) 이지은, 「윤후명 소설의 서정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 강은정, 「윤후명 소설 속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존재의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 안성수, 「<하얀배>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현대소설연구』제1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12, p.294.

탈사회적(혹은 탈정치적) 맥락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지양⁷⁾해야 한다고 하였고, 김윤식은 아득한 환각(이미지), 울림의 소설, 서사구조의 빈약과 같은 비산문적이고 매우 낮은 그의 문학이 확실한(현실적) 것과 닮아 있다고 하면서 윤후명은 자기 얘기를 ‘자기 얘기로’ 쓰는 특이하고도 뚜렷한 작가⁸⁾라고 평가한다. 이에 동의하면서 자전적 요소와 현실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기법적·상징적 측면에만 치우친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작가연보, 산문집, 소설 속의 ‘자기 얘기’를 추적하고자 한다. 작품과 작가는 분리될 수 없으며, 작가의 성장 과정은 창작배경에 영향을 끼치는 데⁹⁾ 윤후명의 경우 원형 모티프와 방황의 실체는 작가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

주인공이 방황하고 떠도는 삶의 배경엔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이 낳은 억압과 공포, 유배, 피신, 도망하는 삶이 드리워져 있으며 소재와 기법에서 나타나는 환상성과 낭만성을 통한 자아 찾기는 개인의 경험과 역사적인 현실문제에 기인한다. 그의 문학 속에 투영된 그리움과 기다림의 실체를 전쟁체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¹⁰⁾ 그리고 모친 콤플렉스와 아버지를 통한 뿌리내림 원망(願望)으로 봄으로써 소설에 나타난 방황

7) 고명철, 『시대고를 건디는 몽환의 비의성과 자기존재의 정립』, 『한민족문화연구』제 38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p.161.

8) 김윤식, 『환각과 울림의 공명관: 협계열차 윤후명의 해매기와 그 벗어나기론』, 『가장 멀리 있는 나』, 문학과지성사, 2001, pp.301-302.

9) 박종석, 『작가 연구 방법론』, 역락, 2002, p.97.

10) 외상이란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자극이나 충격에 의해 입게 되는 정신적 상처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른바 전쟁 외상성 환자들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일상생활이나 꿈속에서 그들이 무방비 상태로 겪어야 했던 치절한 비극의 현장을 거의 자동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어머니의 사라짐에 대한 상실과 즐거운 귀환을 의미한 아이의 포트-다(fort-da)의 반복과 전쟁의 악몽이 반복되는 외상성 신경증 환자의 현상을 반복강박(repetition compulsion)이라고 하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pp.9-89, pp.265-266 참조.

의 근원과 태고유형(원형)을 도출할 수 있다.

작가를 쫓기듯 방황하게 한 사건은 6.25이다. 고향 강릉에서 전쟁을 겪은 1946년생인 작가는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 덩그러니 남는다. 텅빈 마을과 ‘하얀 길’, ‘하얀 신작로’로 표상되는 전시상황 속의 고향 이미지는 어린 소년을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외로움과 그리움의 감정으로 각인시킨다. “어머니와 나만을 두고 모두 떠나버린 외로운 유배”¹¹⁾였던 고향 풍경은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으로 기억되고 무의식 속에서 작가의 삶을 지배한다. 어린 자식의 병간호를 위해 피난을 포기한 청상의 어머니가 당했을 고통을 지켜본 작가는 아버지와 옆집소녀의 죽음, 어머니의 재혼, 친부 죽음에 대한 의혹, 양부와의 가족 형성, 탈고향, 생계의 고달픔, 늦깎이 신인 작가로서의 경험을 통해 일생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자신을 방관하며 여행하는 타자적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개인적 소재는 전경화되고 흐릿하게 제시되지만 주도 모티프인 여행서사, 여성과의 일탈, 정체성 탐색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전쟁 트라우마는 파편화되고 명확하지 않은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산산조각이 난 분열자아로 살아가게 한다. 재난은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사고’로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¹²⁾를 뜻한다. 어린 소년이 겪은 전쟁은 끔찍한 재앙이자 엄청난 스트레스로 공간(고향)상실,

11) 윤후명, 『꽃』, 문학동네, 2003, pp.67-68.

12) ‘뜻밖’에 일어난 커다란 재앙으로 겪는 어려움’을 뜻하는 한자어 災難의 다른 말인 災殃 역시 ‘하늘이 내리는 벌’을 의미한다. 재난을 뜻하는 영어 ‘disaster’로 ‘부족함, 결핍, 나쁜’의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δυσ’-(lack of, bad)와 ‘별 혹은 행성’을 가리키는 ‘αστηρ’(star, planet)가 결합되어 생긴 단어로 ‘별의 위치가 잘못 되어 발생한 재앙’으로 새겨지는 재난은 점성술적 성격을 가진다.-문강형준, 『왜 ‘재난’인가?: 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학과과학』 제72호, 2012.겨울호, p.20.-윤후명 문학의 별, 행성에 대한 묘사는 전쟁 재난과 연결되고 있다.

모친 콤플렉스, 아버 찾기로 귀결되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다.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은 3년간의 전쟁은 한 개인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 폭력과 피난, 공포와 전율의 집단기억을 남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상실과 부재의 상처를 남겼다.

그의 문학은 전쟁의 폭력성과 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모더니즘 기법을 수용한 이제하나 김승옥 문학과 비견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외상과 그 근원인 현실을 분열의 형식¹³⁾하에 고찰하는 모더니즘 성장소설은 시적 표현, 수필적 서사, 해체된 구성으로써 실험적이고 퓨전화되어 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는데, 친부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의문과 무덤을 찾아 헤매는 일은 자기를 찾는 일이기에 방황하는 삶의 형태에 관여한다. ‘변소 구멍의 한 남자’는 아버지 얼굴과 겹쳐지면서 소년의 내면에 깊은 상처¹⁴⁾와 폴리지 않은 숙제로 남는다. 친부와 의무, 두 아버지를 둔 작가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소설 속의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소년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¹⁵⁾을 끼쳤을 것이다. 6.25는 친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5.16으로 인해 양부는 몰락하게 되며 생계의 곤란을 겪게 함으로써 어린 소년이 감당해야 했던 전쟁의 상흔과 가족해체는 정체성의 훼손과 정신적 상처, 가

13)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7, p.441.

14) 이창준 소설의 ‘전깃불 모티프’와 같이 작가는 북한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어떤 혐의로 어머니와 끌려간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작가가 본 변소구멍의 남자는 아버지의 죽음과 중첩되면서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15) 부대의 젊은 법무장교였던 양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인 군 지프차를 타고 전방 곳곳을 누비던 사람이었지만 오일록 군사혁명이 완성되자 현장에서 쫓겨났고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당하게 됨으로써 배추농사를 하게 된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윤후명,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린 눈물을 다오』, 앞의 책, pp.42-57. 참조-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은 친부와 계부, 그리고 한 가족의 삶을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가거나 고통 받게 하였다.

죽질서의 붕괴를 가져왔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중소도시인 강릉에서 태어난 작가는 육군 법무관이었던 계부의 전근으로 일찍 그곳을 떠남으로써¹⁶⁾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만 혈연관계가 아니듯이 상처로 각인된 고향 강릉도 유사(類似)고향인 까닭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며 고향과 부친, 자신이 낯설고 멀게 느낀다. 양부와의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가족관계¹⁷⁾가 형성된 그는 ‘고향’과 ‘가족’과 ‘자신’에게서 멀리 벗어나고자 한다. 타국을 방랑하고 헤매는 여행자의 목적지는 고향 혹은 고향길이지만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고향은 옆집소녀 세화와 뛰어놀던 곳이자 20대의 아름다운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곳이지만 전쟁 이후 상처와 고통으로 기억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간 집단에게 고향은 세계의 중심이자 강렬한 애착인 곳으로 도시나 토지는 어머니로 간주되며 그것은 자양분을 제공¹⁸⁾한다. 그러나 ‘두려운 낯설음(unheimlich)’¹⁹⁾으로 인식처이자 존재의 근원인 고향(Heimat)은 다가갈수록 불안을 동반한다. 고향상실감이나 향수는 한국인의 마음 속 같이 자리 잡은 근원적 감정²⁰⁾이며, 윤후명 문학에 나타나는 이방인으로서의 방황

16) 1953년 대전으로 이사한 작가는 대전 선화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춘천의 피난민 천막초등학교, 대구 수창초등학교, 경기도 양주군 남면국민학교를 거쳐 부산진초등학교에서 졸업한다. 아버지가 거의 매년 근무지를 옮겨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게 되는데, 그의 방랑과 떠돌은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다. - 윤후명, 『나의 문학적 자서전』, 『199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p.427.

17) 아버지와와의 갈등과 불화는 증편소설 <모든 별들은 음악 소리를 낸다>에 잘 나타나 있다. 소설 속에서 남다른 외국의 집착과 오기를 지닌 아버지는 사업의 잇단 실패로 어머니를 힘들게 했고, 법 전공을 권유하는 아버지와 의견이 달랐던 주인공은 반항하고 저항했으며 그를 실컷 매도했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18) 이-푸 투안, 구동희 외역, 『공간과 장소』, 대운, 1995, pp.238-247.

19)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역, 『창조적 작가와 몽상』, 열린책들, 1996, pp.97-150 참조.

20) 박정선, 『천상병 문학에 나타난 고향』, 『한민족어문학』 제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과 여행도 그리움과 증오감을 동반하는 고향길로 가기 위한 여정이다. 메타픽션²¹⁾의 자아반영적 요소는 작가들의 부단한 자기성찰과 반성일 뿐 결코 현실상황으로부터의 단순한 도피가 아니며 기존의 체계와 관습에 도전하는 참신한 저항문학이라는 점²²⁾에서 자기도취적이거나 내면의식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의 대부분의 소설에서는 작가의 현실적인 정보가 실명으로 거론²³⁾되며, 소설쓰기로서의 창작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윤후명 소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행 중 만난 여성과의 일탈이다. 미지의 여성들은 전쟁 중 기억된 어머니와 옆집소녀 세화의 현현으로, 아동기 초기의 외적 체험인 어머니의 모습이 늘 작가의 마음에 중심을 차지하는 모친 콤플렉스²⁴⁾에 기인한다. 어머니와 단 둘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아났던 꽃다운 모친의 고향과 그녀의 재혼으로 소원해진 관계는 끊임없이 여성을 찾아 나선 작가의 방황과 그리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작가의 개인체험과 유년기 트라우마를 작품의 문맥 속에서 찾아내어 윤후명 소설의 비의적(秘義的)이고 암시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여행과 방황의 원인, 그리움과 기다림의 실체, 여행지와 환상성의 의미, 여행 중 일탈하거나 동거하는 여성의 원형을

p.743.

21) 메타픽션은 소설쓰기에 대한 성찰을 다룬 소설 또는 소설 쓰는 과정에 대한 소설로서, 소설과 작가의 삶 그리고 소설과 비평이 뒤섞이는 소설을 지칭한다. 또한 문학과 인생, 현실과 허구를 뒤섞으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는 상호텍스트성 이론과도 상통한다. - 김성곤, 『퓨전시대의 새로운 문화읽기』, 문학사상사, 2003, p.67.

22) 김성곤, 『메타픽션』, 『외국문학』제18호, 열음사, 1989, p.411.

23) <아으 다롱디리1>에서는 ‘전쟁은 내 아버지를 앗아갔고, 고향을 떠나는 길을 재촉’했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 두 식구라는 점과, 식물학자가 되지 못한 것에 한이 맺혔다는 고백, 고향이 강릉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별들의 냄새>에 그려진 80년대적 한국 상황 묘사나 ‘아버지의 묘지를 찾는 일’에 대한 서술 등 작가의 개인적 삶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24) C.G.융 외, 설영환 역, 『C.G.융 심리학 해설』, 선영사, 1986, p.86.

작가의 삶 속에서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또한 자아 정체성 탐색이 민족 정체성으로 확대됨으로써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공감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작가의 고향인 강릉과 개인이력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장편 《가장 멀리 있는 나》와 단편 <강릉/모래의 시>, <강릉/너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II. 여행판타지와 ‘가장 먼’ 고향길

소설 속의 여행구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신화 속의 주몽은 ‘아비 찾기’란 탐색의 여행을 떠나며, 이는 성숙한 남성적 세계로의 전이로서 여기서 아비란 존재는 자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생의 지향점이나 목표점²⁵⁾이다. 집, 가족, 직업에 귀속된 생활인이 아닌 ‘나’는 문학 탐방, 취재 여행, 행사 진행 등의 청탁으로 인한 표면적 이유와 시국과 연관된 사건으로 도피 중이거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소식, 어머니의 장례의식을 위한 이면적 목적을 갖고 여행을 한다.

《가장 멀리 있는 나》는 7개의 목차로 구성되며 여행지는 카리브해의 멕시코와 쿠바, 불교국인 스리랑카, 실크로드의 종착지 터키, 몽골족이 사는 칼미크 공화국, 고려인이 이주해 살고 있는 러시아부터 강릉, 남해 등의 국내까지 다양하다. 제각각의 여행과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의 일탈이 산만하게 서술되고 있는 이 소설의 연결고리는 6.25 트라우마와 가족상실을 통한 뿌리 찾기이다. 자신과의 거리두기 혹은 이탈하기를 통한 자기소외를

25) 서석준, 『현대소설의 아비상실』, 시학사, 1992, p.41.

나타내는 소설제목처럼 고국과 고향, ‘나’로부터 멀어지려는 주인공의 욕망은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결여와 존재의 불안 때문이다. 스리랑카에서의 개기월식을 쳐다보고 한국의 신갈나무숲과 여성의 눈썹을 연상하는 나는 스님의 다비식에서 과거의 여자가 비구니 스님이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던 술집과 여관방을 가보며 사랑의 실체 및 불완전함, 인연에의 비의, 존재감에 대한 불안을 사유한다.

단원2에서는 남해 보리암에서 또다른 과거의 그녀와 지리산 골짜기를 탐방하면서 중국 백두산 밑 백하마을을 회상하고, 단원3에서는 멕시코와 쿠바를 여행하면서 애니깽(헤네켄이란 용설란의 일종)을 통해 일본인들이 멕시코에 팔아먹은 한국인 노동자를 생각한다. 이곳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온갖 간난신고로 겪으며 살아온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본다. 단원4에서는 강릉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강릉문학여행이나 취재, 단오제 행사, 도시 자체를 소개하는 잡지글 기고 등의 청탁이나 부탁을 받곤 했기에 고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고향의 하얀 길은 삶과 사랑에 대한 미궁을 헤매는 일이며, 외로움과 그리움이 삶의 기본 정서가 되게 만든 공간이다.

단원5에서는 남해섬에서 가까운 도시이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A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고향을 탐방하며, 단원6에서는 동포들이 사는 몽골족의 나라 칼미크공화국의 길이 고향길로 느껴지는 착시 현상을 경험한다. 어려서 떠나왔기에 단편적이고 모호한 풍경으로 남은 고향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고자 했으나 체첸 위 러시아의 남쪽이자 카스피해 북서쪽 언저리에 있는 조그만 자치공화국에서 나는 새천년의 이국땅에 있지만 1950년대 고향의 어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 단원7에서는 터키 취재여행에 대한 언급과 공익근무요원 A와의 만남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의 우리 민족과의 조우를 그린다. 터키여행에서도 마

음의 참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 중인 나는 자신의 삶이 “외로움과 그리움이 표독스럽게 두 개의 대가리를 꼴꼴이 쳐든 괴이한 짐승이 마침내는 개인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멸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자 했으나 전쟁은 평범한 삶을 앗아감으로써 주인공을 정착하지 못하게 한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급박했던 1980년대초 여행은 쫓기듯이²⁶⁾ 시작되는데, 이는 근현대사의 사건들과 불확실한 자아 존재감, 뿌리와 기원에 대한 흔들림 때문이다. 어렴풋이 아버지가 의부임을 알게 되어 충격받고 전쟁 중 친부를 잃어 훼손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어린 소년은 후견인이자 양부일 뿐인 대리부와의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주인공이 부친을 찾는 여정은 자기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길이고 아울러 자식이 아버지를 인식하는 행위는 자아에 비로소 눈뜨는 것이며, 자아와 대립되는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는 것²⁷⁾이다. 이질적이고 무관한 여행지를 떠도는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일²⁸⁾이다. “불편한 혹처럼 내 의식을 따라붙어 있는” 아버지의 일은 6.25때 그가 교전 중에 장렬하게 전

26) ①나는 힘겹게 힘겹게 피해다니던 물이었고 …그토록 오랜 도피 끝에 다다른 곳이 벼랑 끝 나라이었다. ②쫓기는 남자와 망설이는 여자는 술잔을 바꿔가며 연신 마셔댔다.(p.153) ③쫓기듯 쿠바를 떠나 멕시코 땅을 밟았을 때 내 눈에 가장 먼저 뵈는 것이 후람보아나무였다.(p.183) ④그런데도 나는 무엇엔가 쫓겼다.(p.212) ⑤…나 역시 오랫동안 명예롭지 못한 수배자로서 쫓겨다닌 나머지 그렇게 되었을 뿐 뭘 특별히 결벽증이 있거나 해서는 아니었다. …오래전에 이미 나는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했는데도 의식은 아직 나를 놔주지 않고 있는 꼴이었다.(p.220)

27) 서석준, 앞의 책, p.43.

28)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산모퉁이 길을 돌아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작가는 <모든 별들은 음악소리를 낸다>, <아우 다롱디리1>, <별들의 땀> 등의 작품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단상과 아비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남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찾기는 여행자 내지 유목민의 입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사한 것인지 소속부대를 이탈하다가 총을 맞은 불명에 죽음인지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와도 ‘하얀 길’과 ‘변소구멍 남자’²⁹⁾에 의 기억은 여행자를 따라다닌다.

일찍 고향을 떠난 나에게 그곳은 ‘하얀 길’로 기억되는데, 칼미크의 길을 자신의 고향길로 혼동할 정도로 나의 의식과 기억은 전쟁 당시에 머물며 아버지의 가묘를 찾아다니게 한다. 주인공에게 고향과 아버지는 유사(類似)고향이자 유사(類似)부친으로 인식된다. 고향을 지우려하지만 문학기행을 의뢰받거나 글을 청탁받아 강릉을 안내하는 여행자는 타인에 의해 강릉사람으로 인식되어 고향을 벗어날 수 없듯이 친부와 계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길항한다. 모두가 떠나버린 고향에 남아 어머니와 단둘이 공포의 나날을 견뎌야 했던 주인공에게 강릉은 파편적이고 상처로 기억되는 결핍과 절망의 공간이다.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남긴 아버지가 죽은 곳, 청상이 된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이 내재된 강릉은 고향이면서도 고향일 수 없는 망각과 기억의 장소이다. 6.25체험은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온 작가에게 신군부로부터의 도피와 유랑생활을 하게 했으며, 세기말의 여행자(노마드)와 새천년의 한민족 이주자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아버지, 고향, 뿌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기억을 갖지 못한 여행자는 스스로가 생경하고 낯설고 어색하기에 자신, 고향, 고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자 하나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매 단원마다 여행을 떠나서 여성을 만나고 고향과 부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사색하고 성찰하는 주인공은 아버지의 죽

29) 6.25가 시작되었을 때 작가의 나이는 다섯 살이었는데, 전쟁 중의 어느 날인가 시가 전이 끝난 아침 머리를 반쯤 변소 구멍 안으로 들이밀고 쓰러져 있는 군복차림의 남자를 보았다고 한다. - 윤후명, 『우리집 변소 구멍의 추억』, 『곰취처럼 살고 싶다』, 앞의 책, p.113.- 어린 아이가 본 변소 구멍의 남자는 끔찍하고 섬뜩한 전쟁 재난의 잔상으로 남는다.

음이 오발사고로 처리되었다는 지인의 자동응답녹음을 듣고 나서 마음의 전쟁을 끝낸다.

《가장 멀리 있는 나》가 아버지 죽음의 비밀과 흔적 찾기 여정이라면, <강릉/모래의 시>와 <강릉/너울>은 어머니와의 흐트러진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여행이다. 암으로 죽은 어머니의 뼈를 담아 커피캔에 옮겨 고향의 바다에 뿌리는 의식을 거행하려는 <강릉/모래의 시>의 나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포항, 울진, 삼척을 거쳐 먼길을 돌아오며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곳에서 나는 열아홉에 자신을 낳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려낸 어머니의 고단하고 가혹했던 삶을 회상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놓지 않던 그녀의 손과 결별하고자 한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마침표여야 하는데 자신에게는 쉼표로 남아있다고 고백하는 내게 고향에 대한 의미는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트라우마와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고향과 바다와 방과제와 전쟁을 경험했던 강릉 동해바다는 죽음과 고독, 모친의 불행, 가족해체와 같은 상처로 각인된 곳이다. 이 지역의 특색 중 하나인 ‘숫대의 나라’로 모친을 보내려는 목적으로 먼 길을 돌아온 고향에서 모종의 의식을 치르며 ‘인생의 목표’, ‘의미의 완성’의 마침표를 이루고자 한다. 쿠바, 러시아, 서울, 포항에서 출발한 7번 국도로 돌아온 고향은 상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세계를 헤맸던 주인공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다. 이러한 해석은 주인공이 읽은 『금강경』의 구절인 ‘환지본처(還地本處: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나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바로 여래를 보나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나에게 “고향이란 진절머리 나는 곳일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공연히 나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말한다. 한순간도 잊을 수 없지만 결코 다가설 수 없는, 다가서기 싫은 고향은 유년기의 결정적 인상과 자신을 확인하는 뿌리이자 그리움과 상처의 공간이자 ‘종교적 공간 체험에 고유한

비균질성을 어느 정도 상처시키는 가치를 내포하는 곳'³⁰⁾으로 주인공을 떠돌 수밖에 없게 하였다.

<강릉/너울>은 모친의 장례의식을 마친 후의 후일담이다. 죽음 의식 이후 고향을 재방문한 나는 과거에 살았던 집을 찾아 헤매며 희미한 유소년기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화장품가게와 소방서건물, 읍사무소, 객사문이 있던 동네에서 하나이어야 할 골목이 두 골목으로 나타나자 집을 찾지 못하며 마을사람들의 의심을 받는다. “개인적인 숙제를 못 마친 듯해서 발길이 가볍지 않은” 나는 바다로 향하지만 그곳에서도 ‘풍경만의 바다’가 아닌 ‘머리 속의 바다’로 표상되는 현실속의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의 바다를 보며 ‘바다는 의미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주인공에게 강릉과 고향과 바다는 현재의 공간이 아니라 텅빈 마을과 배를 타고 부산으로 ‘철수’했던 ‘그날’에 멈추어져 있다. 나에게 고향과 바다는 현재의 시공간이 아니라 전쟁과 피난시절의 시공간으로 각인되며 어린 시절의 기억은 몽환과 환상, 여백으로 남는다.

여행은 “자기를 타자화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³¹⁾이며, 더 나아가 자신을 객관화하고 기호화하는 것이다. 또한 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추구하는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는 고행의 길”³²⁾로서 윤후명에게 여행하기와 소설 쓰기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다. 주인공은 늘 먼곳을 여행하지만 여행지는 현실, 역사, 가족, 고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가, 가족, 민족, 자아

30) M.엘리아데는 고향, 첫사랑의 장소,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도시의 특정한 장소 등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속』, 한길사, 1998, p.57.

31) 윤후명,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린 눈물을 다오』, 앞의 책, p.24.

32) 윤후명, 『꽃』, 앞의 책, p.291.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난 나는 정주와 이주, 떠남과 머뭇, 고향과 타향, 나와 타자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항하고 갈등한다. 가장 밀착되어야 할 고향과 가족이 낯설고 생경한 나는 자신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한다. 주인공에게 여행지는 “서울 변두리를 돌며 서글프게 웅크린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어디론가 영원히 숨겨 버리고 싶은” 욕망 속에서 먼곳으로 떠나고자 하는 공간들이다. “나는 가장 먼 길, 가장 먼 타향을 헤매다가 비로소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라는 독백에서 여행자가 지향했던 목적지가 고향인 강릉의 동해바다와 임당동 옛집임을 알게 된다.

윤후명의 여행판타지에 나타난 회상과 연상, 기억과 망각이 시공간을 무시한 서사의 퇴행을 가져오는 이유도 전쟁 중 겪은 무질서와 혼돈, 막연함, 공백, 정리되지 않음, 공포와 외로움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잘 짜여지거나 구성된 서사구조가 아닌, 흐트러지고 해체된 서사야말로 그 시절의 혼란과 정신의 여백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윤후명 문학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강릉 임당동의 ‘하얀 길’은 결핍, 죽음, 낯설, 공포, 상처, 상실로 점철된 기억인 동시에 순수하고 행복했던 유소년기 추억이 있는 곳으로 주도 모티프(leit-motif)가 되고 있다. 육이오 전쟁통에 이웃집 어린 소녀가 죽고 아버지를 잃는 내게 고향의 하얀 신작로는 방향상실과 여백이 되어 트라우마로 남는다. 작가가 다섯 살에 겪었던 전쟁은 새하얀 ‘빈칸’과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여백을 채우지 못하는 주인공은 자아정립 및 자기구성이 미완된 채 떠돌이 운명을 갖는다. 명확하지 못한 기억들은 파편화되고 단편적으로 남아 의혹과 분열을 가져오며 스스로도 희미하고 흐릿한 존재로서 뿌리내리지 못한 삶으로 이끈다. 주인공의 방황과 떠돌은 폭력과 억압, 독재, 부조리와 불합리로 만연한 한국적 상황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환상성(판타지)은 일상성, 현실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존재의 불안’을

극화하는 것이며 고요한 신비주의와 순수한 인본주의적 심리학 사이에서 좌초한 하나의 형식³³⁾이다. 윤후명 소설에서는 현실과 사실이 생략되어 있고, ‘낮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과 관련³⁴⁾된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국적인 지명들, 희귀한 동식물들, 몽환 속의 사건들과 잘 모르는 여성과의 섹스를 배치하고 ‘친숙함과 안락함과 친밀함을 낮설고 불안과 기괴함으로 대체’³⁵⁾하는 환상적인 것을 도입한다. ‘꿈 사냥꾼’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가장 멀리 있는 나》는 연작 형태로 쓴 작품들³⁶⁾을 묶은 것으로 오래되고 친숙한 불안들/욕망들이 기괴한 사건들 속에서 다시 표면화되어 ‘억압된 것의 귀환’을 구성³⁷⁾하는 전복의 문학으로서의 환상문학이다. 어린 시절 겪은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놓는지를 작가는 방황과 일탈, 여행으로 풀어놓는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유소년기 체험은 환상성을 특징으로 하며 가장 가까워야 할 고향과 모친은 ‘가장 멀리 있는’ 혹은 ‘가장 먼’³⁸⁾ 거리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조각조각 나누어져 파편화된 정체성의 혼란이야말로 윤후명 문학을 이해하는 단서인 것이다.《가장 멀리 있는 나》가 친부의 죽음과 의문을 풀기 위한 여행이라면 <강릉/모래의 시>, <강릉/너울>은 어머니의 죽음의식을 통한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여행이다. 그의 여행판타지에 나타난 전경화되고 맥락 속에 묻힌 자전적 소재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방공호, 총살,

33)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문학동네, 2001, p.14.

34) 위의 책, p.18.

35) 위의 책, p.235.

36) 윤후명, 『작가의 말』, 『가장 멀리 있는 나』, 문학과지성사, 2001, p.318.

37) 로즈메리 잭슨, 앞의 책, p.94.

38) ‘가장 멀리 있는’은 <가장 멀리 있는 나>의 소설제목이고, ‘가장 먼’은 <강릉/모래의 시> 속에서 표현된 인용문구이다.

피난, 전쟁의 그늘이 어린 바다/방파제, 변소구멍의 시체로 남아있는 ‘그날’의 고향풍경이 ‘흐릿하고 또렷하게’ 상처로 각인된 작가에게 삶이란《가장 멀리 있는 나》, <강릉/모래의 시>에 묘사된 러시아롤렛같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운명을 거는 게임과 같은 것이다.

Ⅲ. 복수자아인 타자들의 현현

여행 중 나는 여성타자와 일탈하곤 한다.《가장 멀리 있는 나》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여성들이 동일인물인지는 주요하지 않다. 이는 그녀들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들은 여행지에서 처음 만났거나 과거에 알았던 여자로서 담담하게 관계 맺고 미래를 기약하지 않은 채 헤어진다. 각 단원마다 등장하는 여성들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 ‘문학여행을 따라온 여자’, ‘자살을 꿈꾸는 여자’, ‘옆의 여자’, ‘죽은 여자’로 묘사되거나 이니셜 ‘A’, ‘N’으로 불리어지며, 어린 시절의 세화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갖고 있다. 그녀들은 서로 닮아 있는데, 세화는 유등제에 왔던 여자와 닮았고, 무릉도원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A는 터키에서 통역 겸 안내자였던 N을 연상시킨다. 유령처럼 표상되는 그녀들은 여행지에서 근대남성주체인 여행자에 의해 호명되며, ‘수줍음, 자기를 감춤, 신비, 빛에서 물러난 도피이자 에로스적 욕망의 대상’³⁹⁾이 되고 있다. 그녀들은 도피 중이거나 은신처가 필요한 남성에게 말 없는 이해, 환대, 영접, 수용으로 형상화되며 파악되지 않는 자 따라서 신비한 자라는 여성 은유의 오랜 전통⁴⁰⁾을 지니고 있다.

39)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p.100.

40) 위의 책, p.3.

신비롭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길위의 여성들은 성숙한 남성의 여행에 보조적인 임무를 맡는다. 여행자의 휴식처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그녀들은 남성들이 만들어낸 젠더 역할을 수행하며, 간호와 돌봄의 젠더화된 영역에 머문다. 쫓겨 다니는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 같은 방’ 혹은 ‘방 같은 여자’가 되는 것이다. 연인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여성들은 도피하는 남성의 보호처이자 은신처이며 은닉의 공간이기를 요구받는다. 여성들은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고 싶어하며 남성들은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한다. 그녀들은 가부장적 남성중심사회의 주변부라는 점에서 타자성을 대변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겹쳐지고 포개지는 그녀들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단독자가 되지 못한 여성 집단으로 그녀들이 죽거나 만났던 곳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전쟁 중 죽은 세화와 재혼한 어머니의 현현으로 볼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상실과 결핍을 여성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지만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만들고 -그녀들은 한결같이 이별하며 그와 결혼하지 않는다- 그리움과 미궁, 환상세계로 주인공의 여행은 반복되고 있다.

여행자는 오랜 도피 생활 중이고 사면된 이후에도 “한국에 있으면 아직도 쫓기는 꿈”을 꾸는 장애를 앓고 있다. 쫓기는 남자와 망설이는 여자와의 도술천 밑 우체국에서의 인연은 하룻밤 관계로 끝이 나지만 20여년 후 비구니 스님이 된 그녀와 조우한 후 인생과 인연의 비의를 깨닫는다. 이름도 모르는 익명적 존재에 가까운 그녀들은 존중받지 못하며, 미완성된 남성주체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 역할을 부여받는다. 은둔과 도피, 절망과 슬픔으로 점철된 여성들은 절대적 타자성을 지닌 자기 자신이다. ‘나 아닌 존재’이자 자기 안의 타자이며, 악마의 존재로서의 정령 혹은 유령으로, 자아의 일부로서의 타자로 붕괴되고 분열된 자신의 기원과 맞닥뜨리는 만남이다. 이러한 조우는 ‘느닷없이’, ‘새삼스레’, ‘간신히’, ‘우연처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무계획하에 발생된다.

<강릉/모래의 시>와 <강릉/너울>의 주인공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살려낸 손과 결별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며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헛헛하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본다. 두 아버지를 둔 자신의 분열된 자아와 두 남편을 섬겼던 어머니의 힘든 생애야말로 역사적 사건에 바탕을 둔다. 그가 여행 중 만난 여성들이야말로 20대 어머니의 현현으로 그녀에게 가고자 했던 몸부림이자 갈구의 대상들이다.

《가장 멀리 있는 나》에서의 자살하거나 죽는 여성들은 어시장 한 귀퉁이에 어울리지 않게 있는 ‘꽃장수 아낙네’나 담배를 억세게 빨아대는 덩치 큰 쿠바에서의 ‘집시여자’처럼 존재 부재의 여성 이미지와 중첩된다. <강릉/모래의 시>의 시가를 만드는 공장의 화장실 앞에서 서서 공허한 눈으로 바라보던 쿠바 처녀와 남대천의 미친 여자나, <강릉/너울>의 독길의 여자나 쓰란 키우는 여자들은 머뭇거림, 모호함, 알 수 없음과 같이 정체가 파악되지 않거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분열되고 파편화된 자신이다. 주체나 단독자가 되지 못하고 ‘좀비’, ‘유목민’, ‘여행자’, ‘영아’, ‘유랑자’로 자신을 규정하는 주인공은 자신을 정체성이 모호하고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여성타자와 동일시한다. 전쟁은 아버지 부재와 어머니의 생계유지로 인한 몸의 훼손을 가져왔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정상적 단계를 밟지 못한 아이들은 부친 극복을 통한 상징계 진입에 실패하고 분열과 방황을 가져오는 재난 같은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주체가 아닌 타자화된 자아를 갖기 때문이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행자에겐 거울 이미지(mirror)이자, 삼쌍둥이, 도플갱어 같은⁴¹⁾ 또하나의 자아, 숨겨진 자아이다.《가장 멀리 있는 나》의 여행자는 지리산에서는 빨치산 사내와, 멕시코에서는 희생된 마야

41) 이미림, 『우리 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p.36.

청년과 동일시하며, 집시, 몽골족에 애착을 갖는다. 특히 한민족 이주자와의 만남은 자아 정체성에서 민족 정체성의 확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당해 러시아인이 된 고려인, 돈을 많이 번다는 일 본인에게 속아팔려온 하와이 노동자의 후예들이 사는 지역을 여행하며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과 대면한다. 거주국에서는 소수민족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는 주변부로 여전히 떠도는 한민족 이주자들과 나는 동질감을 형성한다. 이는 “언제부터인가 목적을 잃어버린” 내가 붙박이 의식을 갖지 못한 채 떠돌이 역정을 살아온 디아스포라적 운명이자 형벌로서의 타자적 정체성에 대한 공감이다. “황폐한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나는 지리산에서 자신이 ‘빨치산 사내’라는 착각을 하거나 백두산 밑 백하에서 사는 조선족의 삶을 포착하며 멕시코에서 용설란의 일종인 애니깁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의 존재에 대해 성찰한다.

러시아 여행 중엔 동포화가와 알게 되고 “이 세상 인종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몽골족이 주로 사는 칼미크공화국에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우리 동포와 맞닥뜨린다. 고국과 고향을 가장 멀리 떠나왔지만 아버지와 그녀에 대한 소식, 그곳에서의 잔상과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자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물리적 거리만이 존재할 뿐 심리적·정서적 거리는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있다. <강릉/너울>에서도 나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한번도 바다를 본 적 없이 쫓겨다닌 삶을 살아낸 그에게 바다를 보여주면서 “바다를 한번도 못 본 것은 그가 아니라 내가 아닌가 싶을 지경”이라고 말한다. 같은 한민족이면서도 그는 고려인으로, 자신은 한국인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복합적·다중적 정체성이 자신과 닮았음을 상기한다.

이와 같이 여행자가 만난 여성은 자기 안의 타자이자 고단한 몸을 쉬게 하는 휴식공간으로 상징되며 한민족 이주자는 역사와 뿌리의 은유이기에

자아, 한민족, 운명공동체이다. 자신의 망가지고 분열된 서사에서 탈주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집착하고 복원하고자 하며 일제강점기에 쫓겨난 하와이 노동자, 고려인, 조선족, 탈북자를 통해 민족 정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확인한다. 여정중 만나거나 회상되는 빨치산, 집시, 터키 참전용사, 박사장, 희생된 마야 청년 등은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나가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길”을 가는 자신의 분신들이다. 또한 여행에서 만난 여성타자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복수자이자 분인(分人)이다. 꽃으로 표상되는 길위의 여성들은 작가에게 삶을 확인하고 사랑을 묻는 방법⁴²⁾이자 그리움의 정체⁴³⁾를 알기 위한 매개물이다. 고독, 외로움, 죽음, 불안, 방황은 윤후명과 여행자의 삶의 주요정서들⁴⁴⁾이다. 여행자는 여행 중에 만난 이들을 통해 사랑, 죽음, 삶의 불합리와 모순, 결핍을 탐색하고 있다.

42) 작가는 삶이란 언제나 순수 지향과 원형 회귀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꽃의 상징은 살아있음의 원류 찾기, 사랑 찾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윤후명, 『작가의 말』, 『꽃의 말을 듣다』, 문학과지성사, 2012, p.6.

43) 여성과 일탈하는 그의 소설에서는 ‘아아, 이 그리움의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영탄적·자기고백적 문장들이 서술되곤 한다. -〈북회귀선〉, 『여우사냥』, 문학과지성사, 1997, p.144.

44) 작가는 자신을 살던 곳에서 추방당한 코알라 같다고 때때로 느낀다고 말한다. 코알라는 외로움을 극히 많이 타서 살던 곳에 옮겨놓으면 죽어버리는데, 자신도 근본을 알 수 없는, 밀도 끝도 없는 외로움 때문에 자해를 가하거나 죽음에 가까이 갈 때가 있다고 고백한다. - 윤후명, 『곰취처럼 살고 싶다』, 앞의 책, p.68.

IV. 윤후명 소설의 함의

본 연구는 기법적·상징적 측면에 집중되거나 현실도피적 평가를 받고 있는 윤후명의 기행소설을 전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국가, 민족, 가정, 집, 사회공동체가 그러지지 않은 채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인공의 설정은 가족해체, 고향상실, 전쟁 트라우마, 뿌리 찾기, 모성 콤플렉스에 기인한다. 일생 동안 쫓기듯이 유랑했던 삶은 자유를 얻매고 정착할 수 없게 하며 자기소외됨으로써 분열과 절망에 빠트린다. 탈사회적·탈정치적인 현실인식의 결여를 지적받는 그의 여행판타지는 역사적 사건과 현실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 살 때 전쟁을 겪은 윤후명은 아버지와 옆집소녀의 무고한 죽음, 피란살이, 어머니의 재혼, 양부와의 가족 형성, 사춘기와 병든 문학청년기, 부친의 사업실패, 탈고향, 생계의 어려움, 식물학자의 꿈 포기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삶을 영위한다. 한국근현대사와 함께 한 작가의 삶은 4.19, 5.16, 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 독재, 세기말과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불안, 억압, 공포, 두려움, 고독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도피하거나 악몽을 꾸는 몽유의 길을 떠돈다. 그의 문학은 역사적 사건이 전경화되어 있고, 전쟁의 폭력성과 외상을 리얼하게 그리지 않는 여행판타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동시대 작가와는 다른 윤후명만의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한다.

전기적·자아반영적·메타픽션적인《가장 멀리 있는 나》, <강릉/모래의 시>, <강릉/너울>은 작가와 소설 속 서술자가 거의 일치하며 여행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의문, 모친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고향과 모친은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어색하고 소원한 관계가 형성된다. 방공호, 총살, 피난, ‘덩그러

나', 변소구멍의 시체 등 전쟁의 상처로 기억되는 고향은 그림고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작가의 삶 속에서 지워야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그날'로 무의식 속에 각인된다. 어린 나이이기에 '흐릿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사건들은 창작의 소재가 되어 환상성을 취하며 '나'의 여정은 고향길인 '하얀 길'로 회귀하는 기나긴 오디세이이다. 세 편의 소설에서 여행자는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고 무덤을 찾거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제의를 시행함으로써 방향을 끝낸다.

여행 중 그가 만난 여성들은 어머니와 옆집소녀 세화의 현현이자 여성 타자인 자신의 분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분열과 파편화된 조각들의 조합을 위한 여정은 고려인, 조선족과 같은 한민족 이주자와의 만남을 통해 개인적 체험에서 민족적 체험으로 나아간다. 유랑자이자 유목민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일생동안 방황하고 여행했던 자신의 삶이 쫓기듯이 살아냈던 디아스포라 운명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이다.

윤후명 여행판타지는 억압과 공포, 상실과 결핍을 가져온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도피 내지 자아의 몰입이라는 기존의 일관된 해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소설제목처럼 자신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소외된 주인공의 비극적인 방황이 한국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윤후명 소설은 현실반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윤후명 문학의 비의는 전쟁 상흔과 아버지의 상실로 인한 타자적 자아의 떠돌음 여성타자의 상징성, 이국적인 동식물 묘사, 시공간의 주관성과 비유기성 등의 환상성과의 조화를 이루며, 불안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한국현실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윤후명, 『가장 멀리 있는 나』, 문학과지성사, 2001.
 ———, 『하얀 베』, 『1995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5.
 ———, 『여우사냥』, 문학과지성사, 1997.
 ———, 『곰취처럼 살고 싶다』, 민족사, 1997.
 ———, 『꽃』, 문학동네, 2003.
 ———, 『나에게 꽃을 다오 시간이 흘린 눈물을 다오』, 중앙books, 2010.
 ———, 『꽃의 말을 듣다』, 문학과지성사, 2012.

2. 논문 및 단행본

- 강은정, 『윤후명 소설 속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존재의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p.1-96.
 김애령,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2012.
 고명철, 『시대고(時代苦)를 견디는 몽환의 비의성(秘儀性)과 자기존재의 정립: 윤후명의 실크로드 여행 서사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제38권, 2011, pp.139-164.
 권명아, 『세계로 향한 구석, 무한으로 향한 내밀』, 『작가세계』제27호, 세계사, 1995. 겨울, pp.18-41.
 김동원, 『어떤 연금술사의 사랑만들기』, 『협궤열차』, 동아출판사, 1995, pp.517-532.
 김경수, 『존재의 확산을 향한 여정의 소설』, 위의 책, pp.55-72.
 김만수, 『사소설의 한국적 변용과 그 의미』, 위의 책, pp.94-101.
 김윤식, 『환각과 올림의 공명관: 협궤열차 윤후명의 헤매기와 그 벗어나기론』, 『가장 멀리 있는 나』, 문학과지성사, 2001, pp.298-317.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문예출판사, 2004.
 문홍술, 『한 고독한 구도자의 글쓰기』, 『작가세계』, 앞의 책, pp.42-54.
 박해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향내』, 『여우사냥』, 문학과지성사, 1997, pp.293-304.
 서동수,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서석준, 『현대소설의 아비상실』, 시학사, 1992.
 안남연, 『김승옥, 윤후명 그리고 90년대 작가군』, 『현대소설연구』제14호, 한국현대소

- 설학회, 2001, pp.385-412.
- 안성수, 「〈하얀 배〉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아이즈마토프와 윤후명의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현대소설연구』제1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pp.277-297.
- 양진오, 「여행하는 영혼과 여행의 소설」, 『작가세계』, 앞의 책, pp.73-84.
- 이미림, 『우리 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 이지은, 「윤후명 소설의 서정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1-113.
- 최영자, 「윤후명 소설에 나타난 반영적 사유와 존재론적 인식」, 『한성어문학』제29권,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2010, pp.149-179.
- 최현주, 「윤후명 소설의 ‘正體性’ 탐색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8권, 2000, pp.299-317.
- , 「경험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의 상동성 고찰」, 『남도문학연구』제16권, 순천대학교, 2009, pp.233-253.
- 하응백, 「폐허의 사랑」, 『작가세계』, 앞의 책, pp.85-93.
- 로즈메리 잭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환상성: 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ure in the Travel Fantasy of
Yun Hu-Myeong by a view of autobiographical material
- With a focus on his 《Me in the Greatest Distance》, 〈Gangneung/
Poetry of a sand〉, 〈Gangneung/a headpiece of black〉 -

Lee, Mi-Rim

One of the recent trends in novels is the travel and diaspora motif. Yun Hu-myeong is a writer whose travel narrative is characteristic along with Yun Dae-nyeong,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riters of the 1990s. His literature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modernism technique, fantasy, self-awareness, and stream of consciousness techniques in the aspects of escape from reality and lack of reality perception. This study set out to demonstrate that the Korean War trauma-based reality was revealed in his works through his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Experiencing the war at the age of five, the writer was not able to settle down and led a floating life owing to the death of his innocent father and next-door girl, remarriage of his mother, formation of a family with his stepfather, leaving his hometown, difficulty with livelihood, and giving up his dream of becoming a botanist. His life thus took a place in his literature. Living through the early modern and modern history of Korea in his life, he went through April 19 Revolution, May 16 Military Coup, Democratic Movement of Gwangju, the end of the century, and a new millennium. Caught in those turmoils, he either escaped to such psychological states as anxiety, suppression, horror, fear, and solitude or traveled through the paths of somnambulance full of nightmares. His literature, however, put those historical events in a distant view and featured travel fantasy without depicting the violence and trauma of war realistically, thus acquiring unique and original characteristics to him unlike his contemporary writers. *Me in the Greatest Distance* offers some ideas to

disclose the hidden significance of his novels by pushing his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to the surface, but it has not attracted attention so far. The protagonist, Traveler, makes a repetitive trip to Sri Lanka, Mexico, Cuba, Boriom in the southern coast of South Korea, Gangreung, Turkey, and Kalmykia, having an encounter with many different people, who are other egos of his and others in him. The female others he meets are anonymous beings with no name and are like “rooms like women” and “women like rooms” to men being chased. Those abstract and mysterious women whose identity cannot be figured out have a long tradition of female metaphors are individuals divided from the Traveler in search of his vacant space and emptiness due to war. He also meets Korean diaspora such as th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Goryeo peop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Hawaiian workers in addition to the female others and identifies himself with them since they have a diaspora fate as him, being deported, living as a minority in the country of current residence, and being treated as aliens in South Korea where they remain in the margin. He resolves the suspicion around the disgraceful death of his father and tries to put an end to his wandering by making a final visit to his grave. His travel is his journey along the path to his hometown represented by the “White Road.”

Key Word : Korean War trauma, travel fantasy, ego of revenge, finding a father, autobiographical material, female others, Korean diaspora.

이미림

소속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210-702) 강원도 강릉시 죽현길7 (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3075-3526 / 033-760-8609

전자우편 : milim@gwnu.ac.kr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